

1. 개요

- 일시/장소 : 2019.11.26(화). 09:30~12:00/엘타워 라일락홀(서울 양재동)
- 참석인원 : 12명
 - (농어촌분과위원회)황수철 분과위원장, 이유진 위원, 이은영 위원
(한국정밀농업연구소)남재작 소장 (국립산림과학원)유선화 박사
(성우농장)이도현 대표, 이승희 연구원
(농특위 사무국)임성규 팀장 손영준 팀장 전영미 사무관 김경찬 전문관 김진호 비서관
- 주요 내용
 - 농어촌에너지 전환 관련 발표를 통한 사전학습 및 토론
 - ① 농촌에너지 문제와 과제 ② 원천마을과 성우농장 사례
 - ③ 농특위 기후 에너지분야 연구과제 제안
 - 농어촌에너지 전환에 대한 2020년 논의 과제 및 운영 방향 설정

2. 주요내용 및 결과

- (발표1) 농촌에너지 문제와 과제(남재작 소장)
 - 농업분야, 높은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의 상당한 책임 보유
 - * 농업 온실가스 배출 비중(세계) : CO₂(10%), CH₄(40~50%), N₂O(70%이상)
 - 한국농업, 에너지 대체(석유→전기)로 전력소비량 지속적 증가 추세
 - * 석유 : 85.4%(’92)→59.5%(’16), 전기 : 8.1%(’92)→38.0%(’16)
 - 값싼 농사용 전기(원가대비 35%수준), 소수(대형농가 및 기업 등)에 집중
 - * 예) 농사용(갑)은 계약전력1,000kW 이상 소수고객(399호)이 전체판매량 약1/4 점유
 - 농업분야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관련 정부정책 매우 부족
 - 농업분야의 그린뉴딜을 위한 향후 과제 제시
 - 농업에너지 통계작성, 에스코사업 활용, 농업에너지 가격정책변화 대응, 축산분뇨 순환 방안, 기후변화 대비 농업시설 기준강화 등

□ (발표2) 원천마을과 성우농장 사례(이도현 대표)

○ 원천마을 에너지 전환 사례

- 축산이 상생하는 친환경 생태마을 추진(2014년~)
- * 방목, 조사료,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자립, 친환경액비, 마을관광 등 분야
-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마을 주택 태양광 및 지열 설치(2016년)
- 대규모 태양광(2MW) 설치(2017년), 수익형 태양광 추가 설치(2019년)
- 바이오가스 플랜트 완공, 마을 농가 주택 100% 태양광 설치 및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기반 마련(2020년 예정)

○ 기후변화에 대응한 성우농장의 스마트 축산 사례

- 스마트 축산시스템 활용, 정밀 환경제어 및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
- * 축산에너지 효율화, 축산 ICT 및 재생에너지 시범 모델 구축
-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미세먼지, 악취 저감 등 환경친화적 축산 추진
- IOT-Cloud 기반 환경·사양 관리, 온실가스 저감형 사료 실험 적용 등

□ (발표3) 농특위 기후 에너지분야 연구과제 제안(이유진 위원)

○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*은 총체적으로 미흡함

- * 부처합동 2019년 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”의 검토결과 우리나라 전반의 정부부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함
- 감축목표만 제시하고 예산 등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

○ 농·수산 부분 기후변화 관련한 정부의 연구추진 및 정책자료 부족

- 현재 상황 및 기후변화에 따른 10~20년 내 단기 변화 분석 필요
-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체계는 기후변화 위기를 다루기에 적합한지, 기후변화 관련 걱정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

○ 농특위 기후 에너지분야 연구과제 제안

- (1안) 전반적 분석과 장기 연구를 설계하는 연구(3년) 추진
- * 기후변화·에너지 연구와 정책전반 분석·평가, 장기 연구과제 계획수립 등
- (2안) 포럼을 활용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정책연구(1년) 추진
- * 주요주제(전기요금 개편, 농민 주도 재생에너지, 농가주택 단열개선, 축산바이오매스 등)에 대한 분기별 포럼 추진 및 토론의 장 마련

□ 주요 논의사항

○ 기후변화 및 농어촌에너지 전환 관련 국가적 인식

-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값싸게 많이 공급하고, 이를 통해 많은 수출을 하여 경쟁력을 갖춘다는 기초를 지난 50년간 유지함
- * 특히, 농업용 에너지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유지된 이유로, 농민 등 농업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기후나 에너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함
-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하기 보다는 파리협정, 국제사회 에너지 가격, 배출권 거래 등 국제적 외부충격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임

* 유럽의 기후변화 관련 농업에 대한 인식

- 유럽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환경, 기후변화, 동물복지이며, 농업농촌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압력이 큼. 현재 우리나라와 상당한 격차 존재
- 독일의 경우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양을 채우지 못해 엄청난 벌금을 무는 사례 등, 기후변화가 농업의 탓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음

- 농특위가 기후변화 및 농어촌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, 정부의 추진방향을 제시할 필요

○ 농어촌에너지 전환 관련 농특위 2020년 논의 과제(연구과제)

- 농특위의 한정된 예산과 기간을 고려하면 (1안)은 현실적으로 어려움
- 기후변화, 농어촌에너지 관련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에 대해 포럼의 형식을 통해 의견 수렴하고, 정책결과를 도출하는 형식의 연구 추진
- *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특위 안이 담기 Concept paper 또는 Grand design이 만들어 지는 것이 바람직
- 세부 논의 과제 및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추가논의 필요

3. 향후 주요일정(안)

□ 제4차 농어촌분과 위원회 및 워크숍(12.7)

- 농어촌에너지 전환 관련 2020년 논의 과제 설정, 연구과제 추진 및 포럼 운영 방향 등 결정